

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5. 2.

CEPA Insight

- 베트남, OECD 가입 추진
- 충남 교류지역인 북부 박장성, 197.1만㎡ 규모 산업단지 조성
- 베트남, 2030년 원전 완공·가동 목표 추진
- 베트남, 정부조직 개편안 '윤곽'..5개부처 통폐합

■ 베트남, OECD 가입 추진

- 2045년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는 베트남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가입을 추진중.
- 팜 민 찐(Pham Minh Chinh) 베트남 총리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(WEF·다보스포럼) 연차총회에서 마티아스 콜먼(Mathias Cormann) OECD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가입 의향을 전달.
- 찐 총리는 "베트남은 OECD와의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"며 "베트남이 글로벌 거버넌스 표준을 충족하고,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OECD가 정책 조언을 비롯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"고 밝힘.
- 이에 콜먼 사무총장은 "베트남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있는 국가로, 동남아에서의 입지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"며 "우리는 정책 연구를 비롯해 베트남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,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들에 관한 OECD의 선언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"이라고 화답.

- OECD는 1961년 9월 창설된 경제분야 국제기구중 하나로, 회원국 간 정책 조연과 경제협력, 글로벌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, 한국과 미국, 일본, 호주 등 3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.
-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돼있으며,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2개국이 가입을 추진중에 있으나, 현재까지 정식 가입국은 없는 상태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963>

■ 충남 교류지역인 북부 박장성, 197.1만m² 규모 산업단지 조성

- 베트남 북부 박장성(Bac Giang)은 충청남도와 교류지역으로 20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.
- 쩐 홍 하(Tran Hong Ha) 베트남 부총리는 197.1헥타르(197.1만m²) 규모 송마이-응이아쭙산업단지(Song Mai-Nghia Trung) 개발에 관한 투자정책을 지난 21일 승인.
- 사업 예정지는 응이아쭙사(Nghia Trung)와 송마이프영(Song Mai), 다마이프영(Da Mai) 일대이며, 총사업비는 2조 8,000억동(약 1억1,180만달러)으로 이중 4349억동(약 1740만달러)을 투자자인 하노이박장산업인프라투자(주)(Hanoi-Bacgiang Industrial Infrastructure Investment)가 조달.
- 사업 기간은 토지 할당일 또는 임대일, 용도 변경일로부터 30개월이며, 운영 기간은 50년간임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958>

■ 베트남, 2030년 원전 완공·가동 목표 추진

- 팜 민 쯔(Pham Minh Chinh) 베트남 총리는 15일 열린 원전건설운영위원회 (쯔 총리 위원장, 이하 원전위) 창립총회에서 중부 닌투언성(Ninh Thuan) 원자력발전소를 오는 베트남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방침.
- 쯔 총리는 "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이 반드시 매년 15~18% 늘어야 하고 핵에너지는 베트남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"이라며 "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이고 결정적인 조치에 나서야한다"고 원전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를 밝혔음.
- 지난 10일 발족한 원전위는 원전 개발과정의 감독과 원전 개발 관련 법적 장애물 인식 및 해결, 제도개선, 국가원자력프로그램 개발, 국제원자력기구(IAEA)와의 협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국가조직.
- 총리 지시에 따라 공상부는 내달 28일까지 베트남 핵에너지 개발 목표에 맞춰 원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필수계획을 수정·보완 해야하며, 닌투언성은 필수인프라 담당 기관으로, 교통·전력·상하수도·교육·헬스케어 등 원전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.
- 또한 쯔 총리는 베트남전력공사(EVN)에 현재 가용한 핵전문가들을 즉시 동원하고 새로운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사항과 계획 마련을 지시.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핵에너지분야 전문가 인재풀은 400명에 이름.
- 현재 베트남은 닌투언성 투언남현(Thuan Nam)과 닌하이현(Ninh Hai)에 각각 원전 1·2호기 개발을 앞두고 있음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884>

■ 베트남, 정부조직 개편안 '윤곽'..5개부처 통폐합

- 팜 티 탄 짜(Pham Thi Thanh Tra) 내무부 장관은 최근 2021~2026년 임기 15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조직 축소 개편안을 승인 확정했음.
-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투자부는 재정부와 통폐합됨. 이어公安부로 이관되는 국영 통신사업자 모비폰(MobiFone)을 제외하면, 베트남사회보험을 비롯한 18개 국영기업과 조직은 종전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소관에서 재정부로 이관됨.
- 교통운송부는 건설부와 통폐합돼 이전의 주요 업무와 기능을 그대로 담당하게 됨. 이 가운데 운전면허발급 소관 부처는 현재 교통운송부에서公安부로 변경됨.
-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연자원환경부는 농업환경부로 통합돼 새로운 부처로 출범할 예정.
- 또한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로 통폐합. 이후 현재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기능은 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며, 언론·출판기관 관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.
-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통폐합되며, 이에 따라 내무부는 현재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업무인 고용과 노동시장 관리, 성평등,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할 예정. 노동보훈사회부 소관인 직업훈련, 아동 및 사회보호 업무,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각각 교육훈련부, 보건부,公安부로 이관.
- 정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축소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18개인 중앙부처는 5개 부처 통폐합, 1개 부처 신설로 모두 14곳으로 줄어들 전망. 이와함께 부처급 기관은 3개로 조정됨.